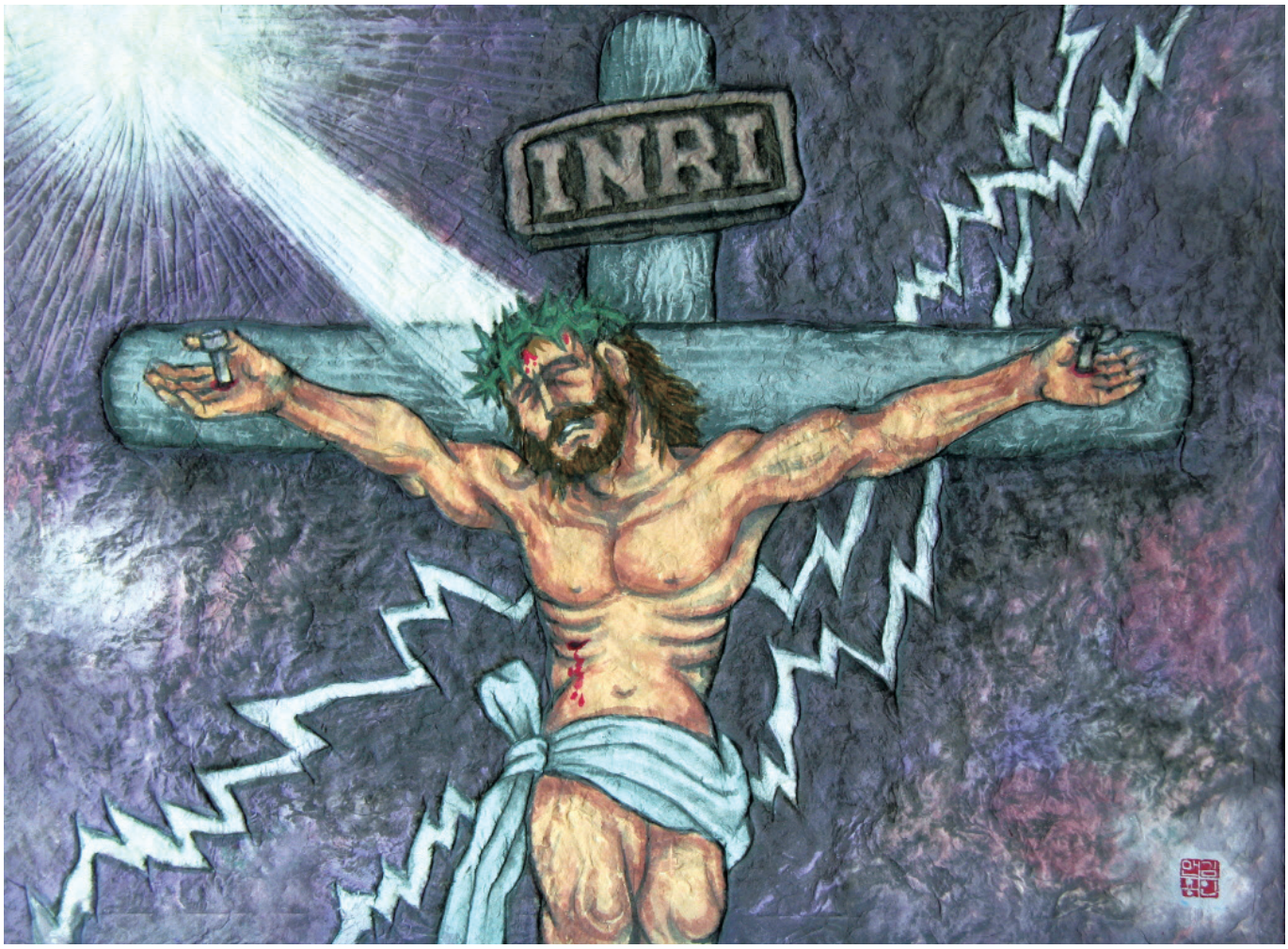
가톨릭 안동

교구 50 주년 다짐 실천의 해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제66호 2020년 4월 5일(가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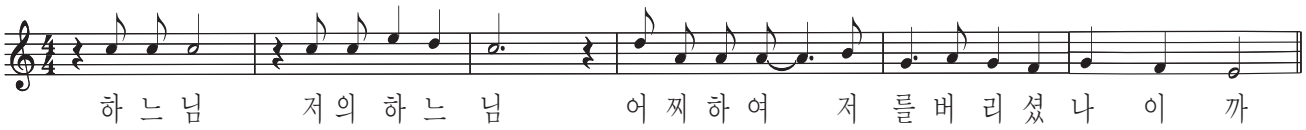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김만용 프란치스코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마태오 27,46)

제 1 독 서 이사야서 50,4-7

화 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손상오 신부 곡



제 2 독 서 필리피서 2,6-11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마태오 26,14—27,66 〈또는 27,11-54〉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발행인 권혁주 | 발행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 054)858-3114~5 | www.acatholic.or.kr | sa3119@nate.com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망동 본당 주임
임준기 다미아노 신부

오늘 우리는 일 년간의 전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인 성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 주간에 기념하는 사건들이 교회가 성립하게 된 근거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전례는 이렇듯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사건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전례를 지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행렬이나, 또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성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들로서는 나름의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왕들의 행차에서는 훌륭한 말과 마차 그리고 갖가지 치장들이 등장하는 데 예수님의 행차는 고작해야 새끼 나귀와 군중들의 때 묻은 겉옷 그리고 나뭇가지가 고작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귀를 타고 행차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축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로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라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군중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겠냐는 빌라도의 말에 동의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기대가 크면 그에 대한 실망도 큰 법입니다. 실망이 극에 달하면 결국 죽음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헛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희생자를 찾습니다. 두세 사람 속에 자신을 감추면 쉽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속에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켜 악의 연대성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인 죄의식마저 묻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라는 듯이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민족적 해방을 가져다줄 하느님의 메시아라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이 빌라도의 손에 잡힙니다. 결국, 군중들은 자신들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망해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구원의 시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 한 줄 .....

묵상한 줄 .....

.....

(오늘의 말씀 중 마음에 와 닿는 구절과 짧은 묵상을 적어봅니다.)

노아 1

외경 에녹 1서는 노아가 눈보다 더 희고 장미보다 더 붉은 피부, 양털보다 더 흰 머리카락과 태양처럼 빛나는 눈을 갖고 태어났으며, 태어나자마자 하느님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꿈란 문헌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서 빛이 흘러나와 집을 가득 채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노아를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인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경건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은 위로를 뜻합니다(창세 5,29).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었으며 하느님과 함께 살았습니다(창세 6,9). 이 마지막 표현은 직역하면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입니다. 노아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인생길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8은 모든 인간 가운데서 노아만이 유일하게 악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약성경의 2베드 2,5의 '의로움의 선포자'라는 표현은 노아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여 살아남도록 노력했음을 암시합니다.

제2 성전시대(신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기원전 515년부터 로마에 의해 다시 파괴된 70년 사이)에 쓰인 많은 유다 문학 작품들이 '노아의 책'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책이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노아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 훨씬 많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홍수겠지요. 창세기 6,7에서 하느님은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두고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대홍수를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홍수가 세상을 악으로 물들인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이 거슬린 요한 외경은 홍수를 일으킨 존재를 하느님이 아니라 하위신인 얄다바오트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12절과 17절에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된 점(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타락하다'와 '없애 버리다'로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이미 스스로 *샤하트*하기로 결정했기에,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하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홍수로 인한 인류 멸망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함원식 이사야 신부/ 안계 본당 주임)

「노아의 방주 앞에서」 카스틸리오네 作

신앙의 두레박

성경의 '파스카 축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지냈습니다.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진 '파스카 축제'는 '과월절', '유월절', '해방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매년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맏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지나가셨음'을 기억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려 홍해를 '건너가도록 해주심'을 기억했습니다. 축제 중에 구운 양고기를 먹으며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기억하고, 쓴 나물을 먹으며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고,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으며 약속의 땅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축제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김요한 사도 요한 신부/ 춘양 본당 주임)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2020년 세계 젊은이의 날의 주제는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입니다. "일어나라."라는 표현은 '부활하다.', '새로운 삶으로 일깨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의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한 과부의 젊은 외아들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죽음 마주하기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을 알아보십니다.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이 새로운 삶의 원천인 만남을 가져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만남에서 우선 휴대 전화로 사진부터 찍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관련된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육체적, 영적, 정서적, 사회적 죽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나오는 젊은이가 사실은 죽었지만, 그가 살기를 바란 그분께서 그를 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도록 당부합니다.

함께 아파하기

성경에서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속속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자주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십니다. 그 어머니의 슬픔은 예수님 자신의 슬픔이 되었고 그 젊은 아들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고통받는 이의 탄식에 언제나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우는 법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어루만지기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다가가시어 가까이 계셔 주십니다. 가까이 있음은 다른이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예언자적 몸짓입니다. 생명을 전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마주치는 고통과 죽음의 실재에 가까이 다가가고 어루만지고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분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걷고 있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이들의 새 생명

되살아난 젊은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루카 7,15) 복음은 전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루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루카 7,15 참조).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 준다면 누군가는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젊은이의 부활은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일에만 관심을 두는 분이셨다면 과부의 아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로마 라테라노 성 요한 대성전에서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프란치스코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정성을 다하는 성지순례
유럽 성모 발현지 순례
10월 15일 ~ 10월 27일 (13일)
390만원 (공동경비 포함)
☏ 02-852-8525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 하는 서민은행
대출(신용·담보),예금(비과세),공제
안동시 태사2길 48(안동의료원 앞)
☏ 054-859-1710

STEAK SOPHIA
스테이크 소피아
안동 최대 패밀리 레스토랑
스테이크,스파게티,피자
안동 홈플러스 3층 (구) 올리에 자리
박금복 소피아
☏ 054-859-9997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옥동사거리
☏ 054-859-2879

문경새재 임꺽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 054-571-2285, 054-572-0027

핸즈커피 월영교점
맛있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15일 이내 원두사용)
조태상 바르사
안동 1번지 월영교 앞 ☏ 054-858-3476

우리농 목성동 직매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직매장입니다.
목성동 성당 입구 (가톨릭센터 뒤)
☏ 054-856-0127

그림 묵상

배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네 이익만 생각하고 약속 어겼잖아,
너만 가지려고 남을 짓밟았던 적 없어?
온갖 득실을 계산하며 사람을 대했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 팔아 넘긴거야,

글 · 그림 김시숙 에스텔

교구동정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코로나19 극복 활동에 동참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회장 김학록 신부)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 및 의료기관 종사자 식사 지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헌혈 참여자가 급격히 줄어든 최근의 상황에서, 감소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앞장서 직원 헌혈을 실시하였으며, 연일 코로나 대응으로 지친 안동의료원 의료진의 사기 증진을 위해 김밥 및 음료수 200인분도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처: 뉴스 경북 3월 17일자 참조)

상주지구성당 코로나 특별성금 기탁

천주교 안동교구 상주지구 8개 성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성금 500만원을 상주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성금을 맡겨줘서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코로나 19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골고루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경북신문 3월 25일자 참조)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 054-855-7582~3

바오로딸 서원
안동시 서동문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인터넷 서점: http://www.pauline.or.kr
☏ 054-859-6040

『나눔과 섬김의 자리』
교구의 모든 본당과 공소의 약사와 사진을 담은 화보집
1,200페이지 올칼라
가격 10만원
문의 010-8560-1654(교구 50년사 편찬위)

주보 광고 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3. 문의: 안동교구청 사목국
054-858-3114~5

화산 염소 방목 농장
분양, 식용 염소 엑기스 및 판매
상주시 낙동면 화산 연촌길 21-82
대표 김 다윗
☏ 010- 4212-2771

천주교 안동교구 봉안 경당
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분양문의: 054-655-1781
세부내용: 안동봉안경당.com

『조선 선교에 바친 삶』
복자 박상근 마티아가 만난 깔레 강신부의 전기
가격 13,000원
문의 858-3111 ~3(안동교구청)

교구장 동정

4월 12일 **부활 낮 미사(목성동 주교좌성당)**

축하합시다

서품축일 4월 5일 **이춘우 신부**

1. 주일 미사 대송

1) 확진 여부와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최근 2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신자,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감염이 걱정되는 심신 미약자는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대송을 바침으로써 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주일 미사 대송 :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교구 주보의 강론 읽기(교구 홈페이지)

2. "일괄 고백 및 일괄 사죄"(판공성사)

1) 올해 부활 판공성사는 개인 고해성사 없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대신합니다.
2) '일괄 사죄'를 받으시더라도 중죄가 있을 경우에는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까지 개인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3) 부득이한 이유로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까지 개인 고해성사를 보시면 판공성사를 보신 것으로 인정됩니다.(올해만 적용됨.)

3. 미사 거행 시 유의사항(다음 사항은 각 본당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미사 주례 사제와 전례 준비자 및 봉사자들은 미사 전후에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2)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3)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례자는 장부에 이름과 세례명,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른 본당 소속인 경우, 소속 본당 이름도 적습니다.
4)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헌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미사 참례자는 되도록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6)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7) 미사 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8) 영성체 때에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각자 속으로 침묵 중에 합니다.
9)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유의합니다.
10) 미사 중(평화의 인사 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11) 교구장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미사를 제외한 모임, 회합, 행사는 모두 중지합니다. 커피 등 음료와 기타 음식 나누기도 금지합니다.

4. 파스카 성삼일 전례

1) 주님 만찬 성 목요일 미사

· '발씻김 예식'은 생략합니다.
· 주님 만찬 미사 끝에 성체를 따로 수난 감실로 옮겨 모시지 않고 성당 감실에 그대로 모십니다.
· 밤샘 성체 조배는 만찬 미사가 거행된 성당(넓은 공간)에서 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며, 필요한 경우 해설자가 조용히 기도와 묵상 안내를 해 줍니다.

2) 주님 수난 성 금요일

· 수난기는 주례사제와 봉사자만 읽고 회중은 듣습니다.
· 보편 지향 기도에서, 특별 지향으로 병자와 죽은 이들,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기도문은 사목국에서 제공)
·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3) 파스카 성야, 주님 부활 대축일

· 빛의 예식 후 신자들의 행렬은 생략하고 사제와 봉사자만 제대로 행렬합니다.
· 교우들은 초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 성수 축복과 성수 뿌림 예식은 부활시기의 다른 날을 정해서 합니다.
· 세례 전례는 다른 날로 옮기고 '세례 서약 갱신'만을 합니다.

5. 교구 수도자 모임(4.20~21), 교구 친교의 날(4.30) : 취소